

피부암

김 동 건 ·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각종 공해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더불어 피부에 생기는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부암은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글에서는 대표적인 피부악성종양인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그리고 악성흑색종에 관하여, 각각의 원인(특히 태양광선과의 관계), 증상, 치료방법 및 예방법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1. 기저세포암

가장 흔한 피부암으로, 50세 이후에 주로 발생하나 요즘들어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관찰된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태양광선에 있는 자외선이 기저세포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외에 외상, 방사선 조사 등도 원인으로 생각된다.

주로 얼굴, 이마, 목, 가슴과 등의 윗부분 등 일광노출 부위에 표면이 매끈한 작고 반짝이는 결절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병변이 조금 큰 경우는 가운데가 함몰되고, 경계부위에 진주모양의 반짝이는 결절들이 둘러싸여 실팍줄이 보이는 모양을 보인다. 살색 혹은 붉은색을 띠는데, 병변 내에서 검은색의 과색소 침착을 보이기도 한다.

기저세포암은 다른 악성종양과는 달리 매우 천천히 자라며, 병변 주위의 정상 피부 조직을 파괴시키지만 다른 부위로의 전이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외과적 수술, 냉동치료, 전기치료 등의 방법

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발률 등을 고려하면, 외과적 수술로 병변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편평세포암

두 번째로 많은 피부암으로, 피부의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에서 생겨난다. 원인으로서는 태양광선 중의 자외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기저세포암의 경우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외에도 유전적 요소, 외상, 바이러스 감염 등도 편평세포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몸의 피부나 점막 어디에나 생길 수 있으나 특히 얼굴, 귓바퀴, 입술 등에 호발하며, 특징적인 병변은 중앙에 궤양이 있고 주위로 붉은 색의 튀어오른 단단한 경계를 가지며, 궤양 부위에는 딱지가 앉기도 한다.

기저세포암과는 달리 다른 주위조직, 임파선 등으로 잘 퍼지므로 치료 전에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각종 공해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더불어 피부에 생기는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과적 절제술, 방사선치료, 전기소작술 등이 널리 쓰이는데 암의 크기, 위치, 모양 등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적인 방사선 치료 혹은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편평상피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으로 생각되는 태양광선으로부터의 피부의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데, 특히 햇볕에 과민한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화상에 의한 흉터가 있는 경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 등 피부암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조기에 발견하여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데, 기존에 있던 피부병변의 색이 바뀌거나 크기가 갑자기 커진 경우, 병변의 경계부위가 튀어나오거나 출혈이 잘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3. 악성 흑색종

앞의 두 피부암에 비해서 비교적 드물지만 최근 들어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20년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악성변화를 하는 것으로, 진한 갈색 혹은 검은 색을 띠며 경계가 불규칙하고 균일한 색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열고 진한 색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나타난다. 주로

등의 윗부분에 많이 발생하는데, 동양인의 경우에는 팔, 다리에도 흔히 나타난다.

나이와 피부타입, 흑색종의 과거력이 악성흑색종의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에 비해 15세 이상의 성인이 40배 이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백인의 경우 일광에 의한 피부손상을 더 많이 받아 2배 내지 7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한 번 흑색종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경우 다시 생길 위험성은 90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이율이 매우 높고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몸에 있는 점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을 가지도록 하고, 이때 점의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하거나, 경계가 불규칙해지는 경우, 균일하던 색깔이 다양하게 되어 얼룩덜룩해지거나, 크기가 갑자기 커지고, 쉽게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피부과 의사들은 손, 발바닥, 허리 띠 치는 부위 등 마찰이 많은 곳에 있는 흑색점들은 조기에 제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부암과 태양광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의 약 90%가 노출부위에 발생한다고 한다. 또 재미있는 예로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얼굴의 왼편에,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얼굴의 오른편에 피부암이 많이 생긴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 이들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 준다.

앞에 언급한 세가지의 피부암이 모두 자외선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 예방을 위해 가능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노출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바르도록 하는 것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 **㉔**



▲ 편평상피암의 경우, 태양광선 중의 자외선이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이다.